

대선공약사업 완성도 높인다

시민 불편 없는 편안한 명절 위한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갖고 전주권 균형발전 광역시 그린수소 에어 모빌리티 혁신밸리 구축 등 6개 주요사업 논의

전주시가 전북권 메가시티, 디지털 뉴딜 등 전주의 미래를 이끌 대선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담판질에 들어갔다.

전주시와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 주요 대선공약사업의 논리를 보강하고 타당성을 확보해 대통령 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대선공약사업으로는 ▲전주권 균형발전 광역시(전북권 메가시티) ▲그린수소 에어 모빌리티 혁신밸리 구축 ▲디지털트윈-X 광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세계 5대 시민혁명 동화의 세계화 ▲전주시 덕진권역 국가 도심융합특구 지정 ▲청년 미래채 전북 설립 등 6개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없는 권역의 누적인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에 대한 새로운 균형선도도시 프로젝트와 정부의 한국관 뉴딜 정책에 발맞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는 이날 논의된 6개 사업 외에도



전주시와 전북연구원은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발굴했던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최종 확정된 대선공약사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4개 시·군의 발전 역량이 전라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현장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도 높은 시·군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제20대 대선에서 전주시 주요 사업이 대선 후보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대선공약사업을 조기에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 작가 초청 강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서 전주독서대전 사전강연 열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작가가 14일 전주시 초청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2021 전주독서대전 사전강연을 했다.

한 달여 남은 2021 전주독서대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김 작가는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을 읽어보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최근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작가는 오랫동안 시적 대상으로 삼아왔던 주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며 시를 썼는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힘은 독서에서 나옴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김용택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2021 전주독서대전이 시민들을 위한 전주만의 차별화된 즐겁고 안전한 책축제로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독서동아리, 문화계, 교육계 등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기는 책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원관본문화관, 도서관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정여울, 객재식, 강화길, 이은혜, 정은숙, 고미숙, 안도현, 문신, 백은유, 홍은진 작가들이 초청돼 시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완산구,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코로나19 방역·교통·환경 등 6개 분야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코로나19 걱정과 생활불편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완산구는 ▲코로나19 방역 ▲교통 ▲환경 ▲가로 정비 ▲이웃사랑 ▲경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해 중점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특히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유홍주점,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사고대응지역 시설보완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총괄지원반 등 5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꾸려 총 110명이 상향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19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재택근무 조를 편

성·운영해 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행정력을 쏟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교통, 도로 등 시민불편 사항을 공백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추석 명절 음식·선물 구매는 전통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시 공무원, 장보기 행사 전개... 전통시장 상인회, 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남부시장과 신중양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일정을 분산한 가운데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소독작업을 펼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



김승수 전주시장장이 14일 전주남부시장에서 지역사회상생공헌으로 제수용품인 대추를 구매하고 있다.

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드림직업전문학교 교육생 대상 구직기술 향상교육

전주시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기술을 전수한다.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드림직업전문학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구직자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인사서류 문항의 작성 방법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1분 자기소개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동인직업전문학교와 등용문직업전문학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향상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